

● 뿌리를 찾아서

신라 김씨(金氏) 왕족으로서의 안동권씨



김일운
사단법인
신라송해전릉보존회 이사장
4선 국회의원,
헌정회 부회장

안동권씨(安東權氏)는 네이버(naver)에 성씨별 인구수를 검색해보니 대한민국 533개 성씨(姓氏) 중 705,841명(1.4%)으로 제15위이다. 안동권씨의 시조(始祖)는 고려시대 공신이며 대사공인 권행(權幸)이다. 권행은 원적(原籍)이 신라 종성(宗姓) 김씨로 대보공(大輔公) 휘(諱) 알지(闕智)의 26세손이다. 고조(高祖) 할아버지는 신라 제45대 신무왕(神武王)이고 증조(曾祖) 할아버지는 신라 제26대 문성왕(文聖王)이다.

문성왕 후손인 김행(金幸)이 호족(豪族)으로 지내고 있을 때 927년에 후백제의 견훤(甄萱)이 신라를 침입해 포석정에서 경애왕(景哀王)을 자결케 하였다는 소

식을 듣고 격분하였다. 견훤은 다시 2년 후인 929년(경순왕敬順王 3년) 12월에 영남 동북의 요충지로서 고려의 영향 아래 있는 고창군(古昌郡)을 공략하기 위해 대군을 몰고 나왔다. 당시의 영남지역은 왕도(王都) 서라벌 일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고을이 신라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성주(城主)의 항배에 따라 고려나 후백제에 항복 또는 끌리어 각기 그 지배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고창 고을만은 요지부동으로 신라 종국(宗國)에 충성하면서 3천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견훤은 이곳만 공략하면 주변 일대가 평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노린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고려 태조 왕건이 고창을 견훤에게 함락당해서는 조만간 신라 전체가 후백제에 병탄(併吞)되고 후백제가 더 막강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급히 대군을 거느리고 구원하러 나섰다.

당시 고창의 성주(城主)는 김선평(金宣平, 안동김씨의 시조)인데 이때 이곳의 병마(兵馬)를 기르면서 수호하는 이가 김행

과 고을의 명망 있는 존장(尊丈)인 장길(張吉, 안동장씨의 시조이며 정필貞弼이라고도 함)이었다. 견훤의 대군은 고창을 에워싸고 있고, 왕건은 예안진(禮安鎭)에 이르러 여러 장수와 싸움에서 불리할 경우 회군 대책을 의논하고 있었다. 김행은 김선평 성주와 장길을 설득하여 왕건에게 복종시켰다. 고창의 요충에서 결사 항전하던 신라군을 얻게 된 고려군은 의기가 치솟아 병산(瓶山)에서 후백제군과 전투를 벌여 크게 이기게 되었다.

순식간에 일대의 30여 고을이 고려로 넘어오면서 대세가 고려 쪽으로 기울어 이후 삼국통일의 위업(偉業)을 달성하게 된 것이다. 공적을 의논하고 포상을 행하면서 왕건은 김행을 보고 ‘능히 기미(幾微)를 밝혀 귀순하였으니 권도(權道)의 적절함을 통달한자라 권도가 있다 할 것이다(能炳幾達權)’ 하고 권씨(權氏)로 성을 내리고 고창군(古昌郡)을 승격시켜 안동부(安東府)로 하며 벼슬을 주어 대상(大相)을 삼았다. 뒤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권행(權幸)에게 삼한벽상(三韓壁上) 삼중대광(三重大匡) 아부공신(亞父功臣)의 호를 내리고 작위를 태사(太師)로 승차(陞差)시켜 안동고을을 식읍(食邑)으로 삼게 하였다. 이에 권행은 태사공으로 불리게 되었고 안동권씨의 시조가 되면서 안동 고을의 실제 영주가 되었다.

이상에서 보면 안동권씨는 권행(權幸)을 시조로 하고 있어서 성손(姓孫) 모두가 신라왕 왕손의 후예(後裔)라는 사실은 정제감과 자긍심을 갖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신라가 기원전 57년에 개국하여 경순왕이 935년에 고려 태조에게 양위할 때까지 992년을 박씨 10왕, 석씨 8왕, 김씨 38왕이 통치하였고 삼국을 통일한 것은 물론이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된 불국사 및 석굴암 등 찬란했던 신라 문화는 모두 김씨 왕 시대에 이뤄낸 대업(大業)들이다.

신라 천년은 가히 경주 김씨 왕조(王朝)였음을 상기할 때 대보공(大輔公) 후예들은 모두가 자랑스러운 신라 왕손의 혈족(血族)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드높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신라왕을 모시고 있는 송해전과 각 왕릉에 관하여 관심과 참여 및 협조는 마땅한 자손지도(子孫之道)가 아닐 수 없다.

경주에는 신라왕을 모시는 송해전과 왕릉을 관리 보존하는 후손들이 모인 법인 체로서 사단법인 신라송해전릉보존회(新羅崇惠殿陵保存會)가 있는데 이 법인체는 불 춘분에는 송해전(崇惠殿) 대제(大祭)를 지내고 가을 추분에는 왕릉(王陵) 대제를 지내며 전국에서 수천여 명의 왕손들이 모여 참여하는 거대한 행사가 열린다.

부자의병(父子義兵) 권희순·권수경

나라가 누란(累卵)의 위기에 빠졌을 때,
내 가족과 내 땅을 지키기 위해 들몰처럼 일어 난 군대가 의병(義兵)이다.

조선 선조 25년 1592~1598년, 임진왜란 당시에 의성(義城)고을의 수성장(守城將) 권희순(權希舜)은 고려 태사공 권행(權幸)의 23세이며 字는 경화(景華)이고 號는 운암(雲巖)이다. 행정공(杏亭公) 식(軾)의 현손, 별시(別侍) 송조(崇祖)의 증손이며 상의원직장(尙衣院直長) 사형(士衡)의 손자, 호군(護軍) 무성(武成)의 셋째 아들이다. 명종 3년인 1548년 무신 6월 3일에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沙村里) 집에서 출생했다.

공은 소시부터 재예(才藝)와 경륜이 특출하고 천문지리와 병학(兵學) 산수(算數)에 까지 박통(博通)하여 향시(鄕試)에 세 차례나 올랐다. 선조 16년, 1583년 계미에 36세로 무과에 급제했는데 장방(唱榜)하는 날 임금이 칭찬하기를 “이는 이른바 문무(文武)를 겸전한 재목이라고 했다. 이듬해 갑신에 선전관(宣傳官)에 제수되고 선조18년, 1585년 을유에는 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가 되었으며 다음해인 선조 19년, 1586년 병술에는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과 내금위별시(內禁衛別侍)를 역임하다가 모친상을 당해 귀가해 집상(執喪)했다.

그 후 선조 25년, 45세인 1592년 임진(壬辰)에 왜란이 일어나자 열읍(列邑)의 수령이 모두 성을 버리고 도주해 버림에 안집사(安集使) 김록(金珣)에 의해 본군(本郡) 의성(義城)고을의 수성장(守城將)으로 임명돼 경상좌병사(慶尙佐兵使) 성윤문(成允文)과 더불어 합진(合陣)하여 전공을 세움에 있어 의성의 군액(軍額)이 가장 두드러진

바 있었다.

이에 곧 안동부(安東府)의 판관(判官)으로 제수되었고 선조 26년, 1593년 계사에는 46세로서 장기현감(長鬐縣監)으로 배수되었다. 이때 백성이 기아에 신음하므로 공이 녹봉을 털어 제휼(濟恤)하니 고을 사람들이 크게 감동했다. 선조 28년, 1595년 을미 2월에는 적선 수심 적이 연일(延日)의 직전도(稷田島)로 야습해오니 공이 분음(憤吟)의 시를 읊어,

조수천년백(潮水千年白) 조수(潮水)는 천년을 두고 흰데 병등오야홍(兵燈五夜紅)병선(兵船)의 등불은 오야(五夜)에 붉구나 남아일두혈(男兒一斗血) 남아(男兒)가 한말의 피로써 적작해천홍(倭作海天紅)곧바로 바다와 하늘에 무지개를 이루리

하고는 곧 정에 장사 3, 4백을 뽑아 대전을 하여 크게 전공을 올리고 적을 참획(斬獲)한 것이 많았다. 이때 홀연히 겨드랑이 아래에 유혈이 남자한 것을 보고 비로소 유환(流丸)에 맞은 줄을 알았으나 격전에 정신이 없어 심한 통증도 있고 철야로 성을 돌며 독전했다. 그러나 이때의 무리로 상창(傷瘡)이 더욱 침중케 되니 부득이 관직을 사하고 귀향케 되었다.

고을 백성들이 남녀 모두가 길을 막고 서로 울며 공(公)의 유임을 애원했으며 송덕비(頌德碑)를 세워 이르기를, ‘장한 기개는 무거운 바다의 요기(妖氣)를 배제시키고 겸



운암공 권희순 묘소

소한 덕은 일경(一境)의 파리한 백성을 소생시켰다. 홀연히 떠나지를 못하게 함이며, 주린 백성들이 죽기로서 막으니 그 어찌 떠난 뒤에 잊지 못하는 사모를 얻지 아니할 것이라 (장기 배중해지침 검덕 소일경지리 모홀거해기육사 민 안득이 무후사 : 壯氣 排重海之侵 儉德 蘇一境之羸 母 忽去兮飢欲死民 安得以 無後思),라 했다.

선조 29년, 1596년 병신에 훈련원 판관(判官)에 제수되고 同 30년에는 오위도총부도사(五衛都總部都事)에 이어 다시 도총부 경력(經歷)에 제수 되었으나 전상으로 인한 신병으로 모두 부임지 못했다. 그러다가 선조 31년, 1598년 무술 5월에 그 신병으로 졸하니 51세였다. 공의 사적은 <동사(東史)>에 등재되어 있다.

배위는 숙인 나주박씨(羅州朴氏) 충의위(忠義衛) 항(恒)의 딸이고 묘소는 경북 의성군 점곡면 윤암리 지동(尹岩里 枝洞)에 정좌(丁坐)로 있다. 공의 행장(行狀)은 옥간(玉澗) 박무선(朴茂先)이 지었다. 아들은 증 이조판서(贈 吏曹判書) 자락당(自樂堂) 수경(守經)이다.

글 김정중/의성문화원 향토연구위원
의성향토사연구회 회장

권해옥 대중회 회장

추밀공파 정헌공계 대사헌종중 묘역 참배

권해옥 회장은 지난 19일(금) 권태왕 대중회 이사와 권환완 편집국장장과 함께 경기도 양주에서 하늘소풍수목장 추모 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권중진(추밀공파 충정공계, 32세) 대표이사(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 회장)를 방문하고 대중회 운영현황과 장례문화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환담을 마치고 일행은 인근에 위치한 추밀공파 정헌공계 대사헌종중 재사(齋舍)를 방문하여 권선옥 대사헌 종중 총무의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묘역을 참배하였다.

편집국장 권행완



대사헌 종중 신도비 앞에서. 권선옥 대사헌종중 총무, 권해옥 회장, 권중진 대표이사, 권태왕 이사(왼쪽부터)

권철인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The Best 착한 일터 선정”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본부장 권철인 부장공파 37세, 사진 왼쪽)는 임직원 이 십시일반 참여한 기금으로 정기적인 후원을 함은 물론, 그동안 꾸준히 지역 내 장애인 생활비 지원, 가정위탁 자녀 후원,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등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일에 앞장서 2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The Best 착한 일터’에 선정되어 경북지회(회장 전우환)로부터 현판을 전달 받았다. 인증패를 전달 받은 권철인 본부장은 “더 베스트(The Best) 착한일터 선정에 감사드리며 한국조폐공사 화폐본



부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산 한성타임즈 권성욱 기자

근하신축년 謹賀辛丑年

여류세월아우رن 如流歲月迺年
송하고당수복선 頌賀高堂壽福先
역병완소변기업 疫病完消繫企業
잠재재기호인연 潛財再起好因緣
이룬점감현인탄 彝倫漸減賢人歎
물욕횡행학우련 物慾橫行學友憐
기구납신민공락 棄舊納新民共樂
심신건승익가견 心身健勝益加堅

세월이 여류(如流)하는 소의 해를 맞이하여 고당(壽)와 복(福) 받기를 먼저 송하(頌賀)드립니다 역병이 완전히 소멸되어 기업이 번창하여지고 잠재(潛財)가 다시 일어나 좋은 인연이 되리라 뗏뗏이 지켜야 할 도리가 점점 감소되니 현인이 감탄하고 물욕이 횡행하니 학우들이 가련하여지네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백성들이 함께 즐기고 심신의 건강이 나아져서 더욱더 굳건하소서

신축辛丑 원단元旦 영가후인永嘉后人
권상목權相穆 근송謹頌

문헌(文獻)을 찾습니다

귀중한 문헌(文獻)을 찾고 있습니다. 아래 문헌 중 한 문헌이라도 소장하고 계시는 분은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경혜공(景惠公, 부정공파 16世, 휘:專, 단종 외조) 친필 가첩
- 2. 안동권씨 소원록遡源錄(1956년, 권계환 편저)

○ 연락처 : 千百年史편집위원회
- 위원 권태현(權兌鉉) 010~9517~1221
○ 주 소 : 우) 51616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로 145